

양대노총 철야농성“헌재는 윤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 헌재 선고 3일 앞두고,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1천여 명,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
- 양경수 위원장 “완벽하게 제압하자,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척결하자”
- 민주노총 3일 임시대의원대회, 확대간부결의대회 개최, 4일 파면선고 전까지 철야농성

양대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1천여 명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전원일치로 파면하라”며 24시간 철야농성에 나섰다. 헌재의 파면선고를 3일 앞둔 오늘(1일) 양대노총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양대노총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설마 윤석열이 석방되겠는가 했지만, 그는 웃으며 걸어 나왔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면서 “끝까지 조금의 긴장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 반드시 윤석열을 전원 일치로 파면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철야 농성에 임하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계엄 이후 4개월 간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확인되는 과정이었다”라면서 “완벽하게 제압하자.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그 토대 위에 노동권이 공고히 보장되고 공공성이 강화되어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양대노총 어깨 위에 짊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시민대행진 참석 후 헌법재판소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14시 광화문에서 비상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4일 11시 헌법재판소 파면선고 까지 철야 농성하며,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선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붙임] 1. 대회 개요

1. 개요

- 일시 : 2025. 4. 1(화) 18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대회명 : 현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양대노총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결의대회

2. 취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국민 불안과 분노가 한계에 다다르며, 파면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도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한민국을 망국의 대혼돈에 직면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압박하고자 함

3. 대회 순서

시간	순서	비고
18:00~18:02	개회선언	사회자
18:02~18:08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18:08~18:10	구호 제창	사회자
18:10~18:15	연대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발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18:15~18:20	문화공연	노동가수 박준
18:20~18:22	구호 제창	사회자
18:22~18:30	투쟁사	- 한국노총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승호 위원장
18:30~18:35	폐회	- 다같이 일어서서 “단결투쟁가” - 구호외치기
18:35~	자리 정리 및 비상행동 집회 안내	사회자

[발언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하루 만에 제출된 긴급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대노총 조합원 동지들, 또 오늘 비상행동 집회를 앞두고 진보 정당 당원 동지들 또 시민 여러분들도 이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윤석열 파면의 결의를 담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기다리던 현재의 파면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일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지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 일치 파면 결정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지난 4개월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나 위대한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양대노총이 그간 함께 걸어왔던 4개월 간의 투쟁의 경로는 한국 사회에 조직된 노동자들의 가치가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부터 학자든 평론가든 그 누구든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설마 계엄하겠냐 했습니다. 설마 국회가 탄핵을 반대하겠냐 그러했습니다. 설마 법원에 체포 영장을 거부하겠는가 그러했습니다. 설마 윤석열이 석방되겠는가 그는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금의 긴장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드시 윤석열을 전원 일치로 파면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오늘 24시간 철야 농성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긴장이 우리의 절박함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졌을 때 저들은 그 틈을 파고들었고, 저들은 회생을 도모했습니다.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척결하는 것,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노동권이 공고히 보장되고 공공성이 강화되어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양대노총 어깨 위에 짊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모든 것을 다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보아도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에 사인을 하는 것은 목요일 늦은 오후나 금요일 오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우리의 투쟁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투쟁합시다. 그것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 양대 노총의 책임이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당당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고맙습니다.